

[붙임]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프로그램 명		달빛 인문학			
프로그램 장소		신중년더채움학습관 2층 열린마루			
프로그램 소개		일상은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활동 범위 속에서 반복되는 근래의 일상은 우리에게 피로와 권태만을 안겨준다. 달빛 인문학은, 어느 지친 하루의 끝에 폭신한 침대에서의 휴식이 아닌 딱딱한 책상에서의 인문학 강좌를 택한 이들에게 일상 속 비밀상을 선사하고자 한다. 집, 가족, 만남, 기억, 여행 등 분명 우리에게 소중했을 어떤 것이지만 잘못 쓰이거나 남발되어 무뎠진 감각만을 남기는 단어들을 낯설게 보고, 새롭게 보는 시간을 통해 일상의 반전을 꾀하고자 한다.			
운 영	기 간		총 시 간	참 여 자 수	수강생 1인 부담금 (교재비 및 재료비)
	'21. 10월~11월 (2개월)		8회(16시간)	30명	
차시	일자 (요일)	시간	세부 교육내용		담당강사 교수방법
1	10/5	19:00~ 21:00	<나의 기억, 우리의 기억> 기억은 인간 실존의 문제와 맞닿는 극히 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적인 것이기도 하다. 두 가지 기억의 양식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을 구성해가는지를 영화와 문학을 통해 알아본다.		이시성 강의
2	10/12	19:00~ 21:00	<나의 우주, 나의 부산> 내가 몸담고 있는 장소는 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내 삶의 현장으로서 '부산'은 지금의 내 삶을 조건 짓는 현장으로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공기처럼 당연해서 성찰하기 쉽지 않은 부산에 대해서, 여러 문학 작품을 경유해 사색해본다.		이희원 강의
3	10/19	19:00~ 21:00	<집, 가장 안온하고 가장 낯선 나의 공간> 영화 '기생충'이 집을 서스펜스의 공간으로 삼기 60여 년 전, 영화 <하녀>(1960)는 이미 집으로 침입해 오는 타자의 형상을 그려낸 바 있다. 집을 가장 내밀하고도 불편한 공간으로 그려내는 상상력의 계보를 하녀시리즈를 통해 살펴본다.		이시성 강의
4	10/26	19:00~ 21:00	<내 인생의 디렉터> 사람은 현실을 이해하고 타자와 소통할 때마다 각자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살아간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매 순간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작은 역사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하의 단편소설 「아이를 찾습니다」와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어댑테이션>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희원 강의

5	11/9	19:00~ 21:00	<팬데믹 시대의 여행법> 세계적인 팬데믹의 유행은 호황의 극점에 있던 여행 산업을 일시에 중지시켜버렸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손쉽게 비밀상을 선사해주었던 여행이 불가능해진 이 시대에도 가능한 새로운 여행의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본다.	이시성	강의
6	11/16	19:00~ 21:00	<마음 맞는 사람이라는 신기루> 사람이라면 보통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꾼다. 그런데 그 과정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사랑과 행복의 정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영화 <her>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이희원	강의
7	11/23	19:00~ 21:00	<이별이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이별, 상실, 그리고 죽음과 애도, 슬픔과 허무의 감정으로 우릴 이끌지만 또한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기도 하다. 이 순간들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을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시성	강의
8	11/30	19:00~ 21:00	<만남의 불/가능성>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누군가를 삶에 들이고자 한다. 그렇지만 혼자 서지 못하면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삶이 파국으로 치닫기 쉽다.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이 오묘한 균형에 대해 오기가 미 나오코 감독의 <카모메 식당>을 중심으로 생각해본다.	이희원	강의